

2011년 11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안종일 신산업표준과장, 송주영 연구관(02-509-7296)

치의학분야, 한류열풍으로 세계시장 리드

- 치아신경치료재료 “국제표준화 성공”, 2013국제표준화 총회유치 -

- 국내 개발기술인 “치아신경치료재료”가 치의학의 선진국인 미국, 독일 등의 적극적 지지하에 국제표준화기구 ISO/TC106(치의학)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(11월7일)되었으며 2013년에 관련 국제표준화 회의 유치도 확정되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밝혔다.

• ISO/TC106 :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Dentistry Technical Committee
 - 치의학 국제표준을 제정 관리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
 - 현재 총156종의 치의학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

- 채택된 표준개발기술은 전남대 박영준교수,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개발한 것으로 치아신경치료시 인체 친화형재료를 열에 녹여 사용하므로 밀폐성이 좋고 시술이 신속 간단하여 치료실패율도 대폭 감소시키는 등 우수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음

* 인체친화형재료 : 천연고무 주성분에 인체 무해한 첨가제로 임상결과 우수성이 입증됨

- 기존 신경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막대를 여러개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시술실패율이 높아 통증지속, 치이뿌리파손, 고름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환자의 불만이 있어 왔음

- 이번 국제표준화 성공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의학 관련 국제표준 기술로서 국내 의료관련 지식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파급효과가 기대된다.

- 이번에 개발된 치아신경치료 재료와 관련된 세계시장은 약1조원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이 20%를 상회하고 국내에서는 (주)메타바이오메드 등 7개 업체가 본 개발기술 제품의 해외시장을 약 30% 점유하고 있다.

- 최근 치료효과 우수성에 따른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본 치료기술에 수반되는 충전기기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가치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한편 2013년도에 치의학 국제표준화 총회 유치가 확정되어 국내 개발 치과용 의료기기 세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.

-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, 독일, 일본 등 30개국 300여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치과재료, 구강관리용품, 치과용기기, 임플란트 등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화회의가 2013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.

* 세계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07년말 기준으로 약 46억 달러(5조여원)로 추정, 2012년에는 약 57억 달러(6조4천여원)로 연평균 약 4.4%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(출처: 2008년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, 보건산업진흥원)

- 정부에서는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인 치과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의 중요성 인식확산과 관련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.

□ 주요 내용

- 열 연화 치아근관 치료재료의 유형별 분류체계, 치수, 열적 특성평가 및 기준, 제반 물리적 성질 및 생물학적 특성 평가 방법 및 기준, 제품 포장기준 등을 표준화
- 신뢰성 있는 재료 및 기기의 선택과 사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, 다양한 회사로부터 생산되는 재료 및 기기의 교차 사용 가이드 정보가 제공되는 표준임

□ 활용분야

- 치과 신경치료 분야에 필수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

□ 신경치료 시술방법 비교

- 기존 방식의 근관 신경치료



-시술이 복잡, 치근파절 우려, 불완전 밀폐

- 열연화 근관 신경치료(국제표준 채택)



-신속 간단 부근관 충전가능 열자극 우려